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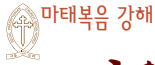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 작은 거인과 같은 제자 야고보

(마 10:2-4)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작은 야고보"라고 말씀합니다.

### 1. 그의 이름

야고보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란 이름 역시 그 당시 너무도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 2. 다른 야고보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고보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크게 도왔던 사람입니다(행 12:1-2).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혈육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는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행 15장).

### 3. 그의 가족적인 배경

성경을 보면 알패오의 아들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세리 마태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막 2:14).

알패오란 이름이 그리 흔한 이름이 아니었으므로 알패오는 마태와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 4. 그의 별명

그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늘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가 영향력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 이 작은 야고보를 가리켜 항상 기도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의 기질상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지는 못해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5. 그의 삶과 죽음

야고보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조용하게 기도하며 자신은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곳에서 톱으로 절단되어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James, Disciple like a Small Giant

(Matt. 10:2-4)

Now, James whom we examine is the son of Alphaeus. The bible says, he is small James.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1. His name

James means "to hold heel." The name of James was universal at that time. Among the disciples there was James who was one of His disciples and one of Jesus' brother.

### 2. Other James

There are the James who is known to us as the son of Zebedee and the full brother of John. He greatly helped the mission work of Jesus (Acts 12:1-2).

Moreover, there was the blood brother of Jesus who wrote the book of James and he showed his great influence in the early church (Acts 15).

### 3. His family's background

In the Bible there also appears a James who is one and the same, the tax collector Matthew.

"As he walked along, he saw Levi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 booth, and said, "Follow me." (Mark 2:14).

Because the name of Alphaeus was not common, a lot of scholars say that Alphaeus might refer to Matthew and the father of James.

### 4. His nickname

Whenever his name was mentioned, people always called him a small James. He did not have a powerful influence. But a historian Eusebius said that James was a disciple who always prayed. Even though the small James did not lead many people to Jesus due to his temperament, he prayed for l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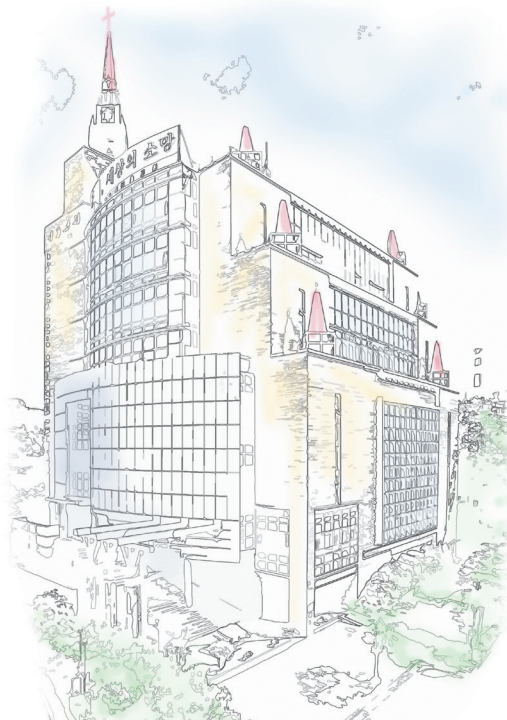
### 5. His life and death

James always prayed that God's leaders could calmly achieve their mission. He went to Syria to preach the Gospel, and there he died a martyr by

cutting of saw.

My beloved Christians,

If some people feel peace, and are able to come to believe in Jesus Christ, this is important work. There are many people who cannot do a huge work as the disciple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support a small miss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3 사명자 대회 뜨겁게 진행 중

## - VIP 작정 4900여명 (10월 13일 현재) -

### VIP 초대 새생명축제 : 11월 15일(금), 17일(주) 양일간

### 특별새벽기도회 : 11월 18일(월)~11월 23일(토)

2013 사명자 대회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뜨겁게 진행 중이다.

이번 사명자 대회 매주 토요일새벽기도회는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토요일 특별새벽기도회(오전5시30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주위의 전도대상자인 VIP 대상은 각 교구와 교회학교 총계가 4921명을 넘었고(지난 10월 13일 집계 결과) 이들을 위해 성도와 교회가 더불어 기도 중에 있다.

또한 그들을 우리교회로 초청하는 『VIP초청 새

생명 축제』가 11월 15일(금)과 17일(주) 2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초정될 새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11월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오전 5시에 진행된다. 아직도 VIP 선정을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 비치된 작성카드에 항목을 채워서 교회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토요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 드리는 은혜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특별새벽기도회

(사진: 손동혁 집사)

## 성경암송대회 은혜중에 마칩다

10월18일 (금) 오후 7시에 진행된 2013년 성경암송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 공신혁 은상 : 오 은 동상 : 김예지  
장려상 : 조수정, 이상민, 황두물, 마승완, 송윤희, 백시진, 김정인, 이수현



### 교육1국[개인]

금상 : 유지연, 장혜윤, 김재령  
은상 : 노진철, 장유정, 송하영, 옥유진, 김은빈  
동상 : 한예준, 박서진 김은송, 김태수, 강예원, 송하은, 정서현

### 영어부[단체]

금상 : [고등부]김성주, 배상은, 진주호, 김세찬, 이지영  
은상 : [중등부4조]박우현, 조영민, 박해나, 라성은, 황성진  
동상 : [중등부5조]박혜민, 이정현, 박혜민, 김은초, 윤지수



### 교육1국[단체]

은상 : [유년A팀] 김동혁, 박서연, 고준석, 홍여주, 강예원, 정은지, 공유찬, 김재은, 유주영, 박주원, 서윤아  
[유년B팀] 이인애, 강주은, 박가을, 박대중, 이혜나, 장유선, 송지현, 강민교, 우정연, 최수용

### 청장년부[개인]

대상 : 박유진  
금상 : 최정숙, 김진달  
은상 : 김진희

### 청장년부[단체]

은상 : [바울선교회] 김진달, 백도환, 김광종, 백승갑  
동상 : [청년1부팀] 이근원, 이신원

### 영어부[개인]

## 대치1동 한마당 경로잔치

### 22일(화) 오전11시, 만나홀에서

대치1동 한마당 경로잔치가 대치1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10월22일(화) 오전11시 우리교회 8층 만나홀에서 열린다.

이번 경로잔치는 경로효친을 실천하고자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대치1동 주민 중 65세 이상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 및 경로잔치를 갖는 행사로 우리교회 만나홀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7)

(문 106)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언제부터 통치를 시작했습니까?

(답) 열왕기하1:17에 의하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한 것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이름 여호람이 나와 독자를 혼란에 빠지게 하나 이들은 동명이인(同名異人)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로 그들은 동맹을 맺어 우정을 과시하기 위해 그들의 아들에게 같은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왕하3:1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다스릴 때 유다의 여호사밧왕 열여덟째 해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즉위 연대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2년인지 (1:17) 아니면 여호사밧 18년인지(3:1) 확실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만년에 그의 아들이 왕을 보필하여 섭정왕이 되므로 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즉위는 유다의 여호사밧 18년이고 그때는 그 아들 여호람이 섭정왕이 된지 2년이었던 것입니다. 즉 여호람은 그의 부왕 여호사밧 17년부터 섭정왕이 된 것입니다. 라못 길르앗의 전투에서 아합은 부상을 입고(왕상22:34-35) 여호사밧은 거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전 853년에 여호람이 섭정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848 B.C까지 살았습니다. 이때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 즉 851-850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 통치(869-868에 시작) 18년이 되는 해도 됩니다. 부왕 아사가 죽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850년에 이스라엘 왕에 올랐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은 여호사밧 18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성경통독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2독〉 : (4교구)백혜숙 권사
- 〈1독〉 : (2교구)안창휘 집사 정봉금 권사
- (3교구)홍정란 집사 (4교구)최차순 집사
- (5교구)이남복 권사 (8교구)지윤준 성도
- (9교구)박희서 집사 (10교구)임훈규 장로
- (11교구)김남순 권사 김양숙 권사
- (13교구)오혜경 집사 정영애 집사

2013 사명자대회 - 70인 전도대

2013 사명자기도

# 우리는 전도의 사명자



최유진집사 (70인전도대 화평팀 팀장)

저는 평소 가까운 사람들은 전도하기는 쉬운데 전혀 모르는 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전도팀장을 맡으면서 그 부담은 더해 갔습니다. 그러던중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치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삶의 생활이 되어 저와 함께 매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동에 이삿짐 사다리차 소리가 나면 얼른 밖을 내다보고 이사온 집의 호수를 기재해 놓고 며칠 후 순례자와 선물을 들고 찾아 갑니다. 처음에는 숙내를 다 내놓지 않지만 몇 번 접촉하다 보면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 교회 가자고 권유를 합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전도열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장갈 때 필요한 것을 사다주면서 관계의 진정성을 통해 아들 친구 엄마아빠를 교회에 등록시킨일,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으로 만나자고 전화를 해온 불교를 믿는다면 도곡카운티 가정 등 저는 친정 부모님이 일년 사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르신들을 보면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가셔야 된다고 전하며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 감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잃어버린 영혼 특히 믿음을 가졌다가 사람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우리들이 복음의 편지, 향기가 되어야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분들을 위로하다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해 5,1,3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많은 결신자들이 등록하여 하늘에는 영광, 교회는 부흥,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수정집사 (고등부 교사)

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천세종 목사님을 비롯한 고등부 선생님들은 한 주도 빠짐없이 내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길 싸움은 없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어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의 모든 시험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복음 전파 사명이 있기에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때문에 얼룩진 갈한 내 영혼에 주님은 자녀라 호명하여 다가오셨습니다

창세 전 택정하사 기쁜 뜻으로 부르시고 주홍 같은 나의 죄를 보혈로 씻기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 평생 전하며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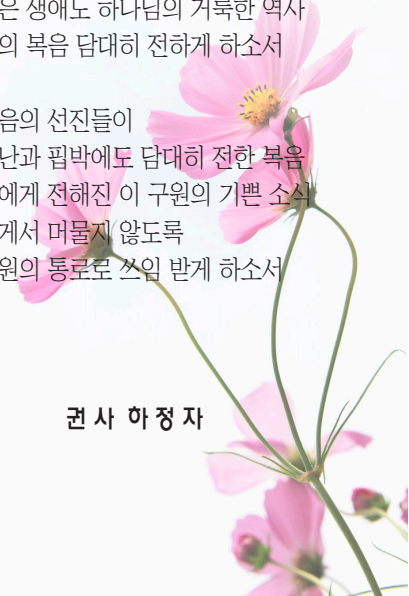
천국과 지옥도 죄 용서의 기쁨도 알리고 전하겠습니다.

구속의 주, 사랑의 주, 부활의 주 살아 계신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은 복음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러 자녀 삼으신 은혜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주의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담대히 전한 복음 나에게 전해진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내게서 머물지 않도록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권사 이정자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 선교보고2

# 와서 우리를 도우라

## 6)고팔바리 장로교회 (네트로코나 지역, 하중 부족, 죽, 오닐 라이쭈우드리 전도자)

### 베로산도 짬부공 목사

거의 150년 가까이 된 오랜 힌두사원이 있어 그만큼 힌두교가 뿌리 깊게 박힌 지역이라 어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리지만 이제 30여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교회에서 도와 주셔서 정말 물이 귀한 마을에 두 곳의 생명의 우물을 파 주셨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이런 좋은 물을 얻은 것이 처음이기에 더욱 뜻 깊은 일입니다. 이 우물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잘 증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 11월에 봉헌예배를 드렸습니다. 7년 전에 세운 교회가 지진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거의 무너질 상황에 놓였는데 후원자 한 분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보배미션 중고등학교 기숙사에 20명의 서로 다른 부족 학생들이 와서 거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서는 자기부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9-10)그레이스장로교회(다카 지역, 필리몬 짬부공 목사/이경엽 목사)

-여러 지역에서 다카로 일하러 온 사람들과 교회 사역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큰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모두를 선교사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므롱부족을 입양하고, 목회자와 교사들 생활비 및 학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 기도 제목 -

1. 각 교회 목회자들이 더욱 더 영적으로 무장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2.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션 스쿨에 기독교교사가 필요합니다.
  3. 방글라데시 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금년 말에 있을 총선을 위해  
- 극렬분자들이 남쪽 지역에 있는 불교사원들과 불

교도집들을 습격하고 불태우고, 이제는 13개 조항을 내세워 탈레반식 정권을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N.G.O와 선교사들을 추방 시키라고 요청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4. 병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1일(주) 남아공 프레토리아교회에서 설교한다. 22일(월)부터 24일(목)까지 WRF(세계개혁주의연맹)이사회에 참석후 25일(금) 귀국한다. 26일(토) 표준주석경독위원회를 소집한다.
- 박정선장로(천양위원장)는 10월21일(월)pm.7:30에 세종문화회관M씨어터에서 대한민국에술원 주최의 "우리시 우리노래"음악회에 창작가곡을 발표한다.
- 목사안수: 노재균 전도사(12교구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차남) 2013년 10월 20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초대교회(해외한인정교회 뉴저지교회)
- 수상 : 김민주(중등부) 제3회 KICS 전국음악콩쿨 관현악 부문 중등부 1등
- 주간식당방사 : 도르가전도회(10.20) 이삭선교회(10.27)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7)깔리아초리장로교회 (반들본 지역, 므롱 부족, 라존 뽀꾸아 전도자)

- 작년 10월에 5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다. 어제 또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 왔습니다. 목회자의 헌신이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무지와 어둠 가운데서 주민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두 곳에 우물시설을 하여 깨끗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위쪽 마을 끄롱렌 바라에서 새롭게 어린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21가정이 모여 사는데 존장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 먼저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 8)쇼키벨 교회 (탕가일 지역, 코치/만다이/방갈리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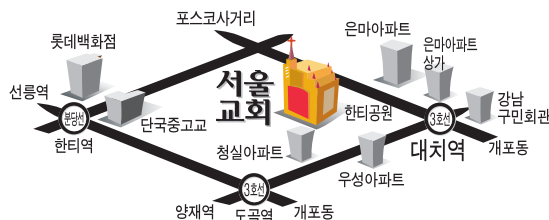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계속되는 사명자 대회 5.1.3 운동, 온가족토요특새, 24시간 릴레이 기도, VIP 초대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2.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고 집중력 주시며 건강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3.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심비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다음세대들과 성도들 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